

나란다 대학, 800만에 다시 문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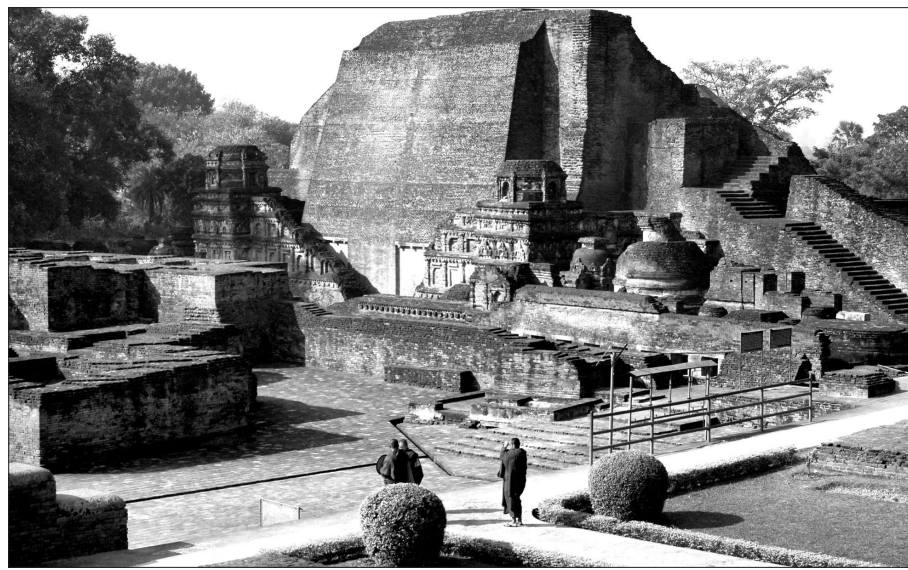
세계 최초, 최대의 종합대학이자 수도원이 800년 만에 다시 학생들을 맞이했다.

《Khaleej Times》지에 따르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정에 들어간 나란다(Nalanda) 대학이 9월 1일 학생 15명, 교수 10명의 구성으로 첫 학술 세션을 시작했다.

“나란다 대학은 2020년부터 7개 단과대학 체제, 과학·철학·사회과학 등의 분야 박사 전·후기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나란다 대학 고파 사브로월(Gopa Sabhrawal) 부총장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세계 50여 유수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었다”며 “이중 40개 대학에서 1000명의 학생들이 이번 학술 세션을 신청했지만, 심의 과정을 거쳐 15명의 학생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인도 비하르 주 관광개발공사(BSTDC)는 이번 학술 세션에 선발된 15명의 학생들에게 타사가타(Tathagat) 호텔 객실을 기숙사로 제공했고, 수업은 비하르 주 정부에서 제공한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인도의 나란다 대학은 기원전 5~7세기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종합대학이자 불교 대학으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보다 훨씬 앞선 1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세계 최초 대학이자 수도원인 나란다 대학이 문을 열었다. 사진은 나란다 유적.

학생 15명, 교수 10명...9월 1일 학술 세션 열어
세계 40개 대학 1,000여 지원자 중 15명 선발
인, 비하르 주정부 교실·기숙사 제공

7세기 인도의 팔라왕조 당시에는 학생수가 1만 명, 교수가 2000명에 달하는 초유의 규모를 자랑했으며, 철학과 불교 뿐 만

아니라 문학과 수학에도 뛰어난 수준을 자랑해 당대 최고의 대학이자 승려들의 수도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그러나 8세기에 들어오면서 굽타왕조의 몰락과 함께 힌두교의 득세로 인해 점점 쇠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13세기 초 아프가니스탄의 고르(Ghor) 장군이었던 무하마드(Muhamad)가 북인도를 침공해 왔을 때 파괴되고 말았다.

이후 나란다사는 폐허가 되어 땅속에 묻혔다가 1861년 영국인 컨닝햄(A. Cunningham)에 의해 발견되어, 지금까지 발굴되고 있다.

현재 나란다 대학은 ‘나란다 유적’에서 16km 떨어진 레그히르(Raghir) 시에서 공사 막바지에 들어갔다. 10억 달러에 달하는 나란다 대학 건설비용은 인도 중앙정부와 비하르 주정부를 비롯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2011년 3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트야 센(Amartya Sen·인도) 박사가 ‘나란다 대학 재건’을 천명한 지 3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라는 사브로월 부총장은 “과거 나란다 대학은 이슬람군의 방화로 6개월 동안이나 화염에 휩싸였을 정도로 세계 학문의 보고였다”며 “지금의 나란다 대학은 인도의 황금시기를 이어받아 세계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곳이 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오종욱 편집위원**

수쉬라난다 스님 ‘당분간’ 합법 체류

셰퍼드 등 지역 여론 반대 거세... ‘추방’ 행정 권고 철회

지난 1992년, 방글라데시 여성의 ‘교육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다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탄압과 위협으로 망명길에 나선 스님이 최근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영국 정부가 8월 초, 2005년부터 국내 체류해 온 스님에게 (조국)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행정 권고를 내렸고, 이에 맞서 셰필드 지역을 중심으로 ‘추방 반대 캠페인’이 전개된 게 알려져서다.

결과는 영국 정부의 한차례 ‘해프닝’으로 끝났다. 스님 체류를 바라는 여론에 밀린 셈이다.

《OurKingdom》지는 지난 9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수쉬라난다(Sushilananda) 스님(사진)이 당분간 영국에 머물게 됐다’며 “셰필드(Sheffield) 일대에서 진행된 ‘추방 반대’ 캠페인의 성과”라고 보도했다.

수쉬라난다 스님은 지난 1992년부터 조국 방글라데시에서 여성, 특히 소녀의 ‘교육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스님의 활동은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반대와 맞서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본주의자들의 ‘살해 위협’과 당국의 ‘수수방관’에 밀려 2005년 영국 망명길에 올랐다.

스님은 영국 망명 이후 2011년부터 셰필드 글리드리스(Gleadless) 계곡에 살며 지역 불교계의 도움을 받으며, 방글라데시 여성 인권을 위한 국제 활동에 더욱 몰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수쉬라난다 스님

그런데 영국 정부가 8월 초 돌연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행정 권고를 내린 것. 그 기한은 8월 28일까지였다. 이에 셰필드 일대를 중심으로 ‘추방 반대’ 캠페인이 전개됐고, 지역 안팎 여론에 밀린 영국 정부는 ‘당분간’이라는 단서를 붙인 채 영국 체류를 허가했다.

《OurKingdom》지는 “우리는 국가 등 거대한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당해 도망친 사람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청원서 시작부분을 인용하고, “셰퍼드 불교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캠페인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참한 10,000여 명의 서명을 날인한 청원서가 관할 당국에 전달됐고, 결국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상으로 삶의 가치와 치유 찾는다

빙엄턴 명상동호회, 매주 무료 강좌 개설

뉴욕주 브롬카운티에서 11년간 지역 활동...회원 500여 명

미국 뉴욕주 브롬카운티의 소도시 빙엄턴(Binghamton)의 ‘불교명상 동호회’가 화제다.

《Pressconnect》지는 8월 30일(현지시간) “빙엄턴 불교명상 동호회가 매주 무료 정기 명상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브롬카운티에서 명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마르되는 ‘명상 클래스’에는 평균 20~30명의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명상을 배우고 있다. 특히 ‘의식→명상→강독’ 순으로 1시간 20분 남짓 진행되는 명상 클래스에는 명상 전문가 2~3명도 동참, 주민들을 지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이도 간혹 생겨난다.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명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찰스 굿맨(Charles Goodman·빙엄턴대학) 교수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지역 주민

들이 명상 클래스를 찾는 것 역시 자신의 삶의 변화와 치유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빙엄턴대학에서 ‘아시아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굿맨 교수는 11년 전 빙엄턴 불교명상 동호회를 결성한 이래 지금까지 동호회 지도 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명상 전문가 2~3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인들로 구성된 ‘명상 클래스’이지만, 그 열의만큼은 대단하다”는 타라 벨세르(Tara Belsare) 씨는 “결가부좌를 한 채 두 눈을 감고 정(靜)에 들어갈 때면, 들리는 소리라고 클래스 참가자들의 숨소리 뿐”이라고 말했다.

벨세르 씨는 11년 전 굿맨 교수를 도와 ‘빙엄턴 불교명상 동호회’를 결성하는 데 일조했다.

《Pressconnect》지는 “불자가 아니어도 명상이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수요일 명상 클래스에 참



미국 뉴욕주 빙엄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불교명상 동호회’ 회원들.

여할 수 있다”는 굿맨 교수의 말은 전하는 한편, “이 지역 최고 사교 모임인 ‘마우라 로우(Maura Loew)’가 최근 명상 특강을 요청할 정도로 이번 클래스의 인기가 높다”고 보도했다.

또한 “빙엄턴 불교명상 동호회 회원이 537명”이라는 데 주목한 《Pressconnect》지는 “명상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케를

린 브레이크 Carolyn Blake), “삶의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메리 쿡데백 Mary Cuddeback) 등의 말을 인용하고, “빙엄턴에서 명상이 확산될수록, 지혜와 연민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지역 사회에서 더욱 회자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앙코르와트 석상 훼손...어글리코리안

대학생 김모 씨, 선교여행 중 기념사진 찍다 사고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석상의 머리를 부수 논란이 됐다.

태국 매체 ‘타이 PBS’ 따르면 8월 15일(현지시간) 선교 여행을 떠난 한국인 대학생 김모(22) 군이 앙코르와트 단지 내에 있는 바이온 사원 석상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다가 석상의 머리를 부수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석상의 머리 부분이 시멘트로 만들어진 모조품인 점과 석상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던 점을 참작해 김군에 훈방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지 경찰당국, 이들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몹시 당황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현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물론 태국과 베트남까지 소식이 퍼졌다.

한국 교민사회에서는 “젊은 대학생이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석상의 머리를 부수 논란이 됐다.

나라 망신을 시켰다”며 부끄러움의 반응을 보였다.

이아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 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헨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뚝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경유익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종로구 우정로45-13 (수송동)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